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1.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8월호가 나왔습니다. 남플 도서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본당 입구에서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 남플 가을소풍/체육대회 안내

- 남플 가을소풍/체육대회
 - * 날짜 9월 7일(월), Labor Day
 - * 장소/ Tradewinds Park/ Grandiosa Shelter
3600 W Sample Rd, Coconut Creek, FL 33066
 - * 행사를 위한 도내이선을 받습니다.
 - * 문의- 홍석주 집사 / 윤성민 전도사
- 남플 가을소풍/체육대회 준비위원회 모임
 - * 일시 : 7월 25일(토) 오전 7시
 - * 장소 : 초등부실
 - * 참석대상 : 목회실, 목자, 관련 사역장(가정사역/목회후원사역/찬양사역/관리사역)

• 선교지 후원

*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을 기증해 주세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중고 휴대폰)을 기증받습니다. 기증해 주신 휴대폰은 선교지에서 복음 사역과 현지 사역자들의 소통을 위해 귀하게 사용됩니다.

- 기증 가능 : 정상 작동하는 스마트폰
- 기증 기간 : 8월 2일(주일) 까지
- 제출 장소 : 교회 사무실 또는 안내데스크

작은 나눔이 선교지에서는 큰 사랑과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선교소식지(2분기) 제작

각 목장별로 선교소식지가 전달 되었습니다. 목장 별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

• 유아 유치부 초등부 소식

- 유아 유치부 큐티학교 오픈! 유튜브 "남플유아유치부" 채널에서 '예수님 이랑 나랑' 큐티가 매일 진행됩니다.

• Y.E.M. (Youth, English, Multicultural)

- Sunday Service @ 10:30 am

예배 및 모임 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 말씀 묵상> (Q.T) (Wednesda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주일예배 (Sunday Service) / 10:30 am
수요 기도회 (Wed. by Zoom) / 7:30 pm
제자훈련 (Thur./Biweekly) / 6:30 p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모임) / 7:00 p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사명 선언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랑을 경험한 예배자들이

말씀으로 양육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지난주 헌금 통계

일반헌금	\$8,652.00	십일조: \$5,103.00 주 일: \$1,927.00	감 사: \$780.00 기 타: \$842.00
지정헌금	\$270.00	목장선교: \$270.00	

** 온라인 헌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2026년도 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권태홍
Rev. TaeHong
Kwon

남부 플로리다
South Florida

강리교회

Global Methodist Church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mcosf.org

< 성령강림후 여덟번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 ▲ 송영 Doxology / 살아계신 성령님
- ▲ 참회기도 Prayer of Repentance
- ▲ 사죄의선포 / 인도자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 찬송 Hymn / 250장(통182)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기도 Prayer / 박인숙 장로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 내 영혼아 주를 찬미하라 -

교회소식 Announcement 영상광고

- ▲ 봉헌 및 봉헌기도 Offering 다같이
- ▲ 성경봉독 Scripture엡(Eph) 5:9 다같이
- 설교 Sermon 권태홍 목사

< 성령의 열매 (6)- 양선 >

Fruit of the Holy Spirit (6)- Goodness

- ▲ 파송찬송 Closing Hymn/ 성령이 오셨네

- ▲ 축도 Benediction 권태홍 목사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6년 7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7월 19일	1부	열매목장	담당자	박인숙장로	
	2부			이혜영권사	
다음주 7월 26일	1부	열매목장	담당자	김수경권사	
	2부			김수경권사	

설교요약

오늘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여섯 번째 열매인 양선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선(良善)’은 ‘어질 양(良), 착할 선(善)’이라는 뜻이지만, 오늘날 일상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도 한글 번역으로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만 등장하기 때문에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헬라어 원어에서는 로마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후서 등 여러 곳에서 사용되며,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선함’과 ‘착함’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선함을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덕목으로 이해했습니다. 플라톤은 이성을 통해 ‘선의 이데아’를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삶으로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복된 선한 습관을 통해 덕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토아 철학은 이성으로 욕망과 감정을 다스리며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양선은 이러한 인간 중심의 선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양선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내는 도덕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삶 속에서 인격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선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하여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5)

또한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마가복음 10:18)라고 말씀하시며, 참된 선의 근원이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8절은 “너희는 여호와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맛본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여 확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교리나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해야 하는 살아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양선은 자신의 의와 생각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삶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장면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요한복음 2:13-17).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며, 상을 엮으시고 그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처음 이 장면을 읽으면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분노를 표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선은 단순히 부드럽고 착한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죄를 책망하고, 거짓을 무너뜨리며, 악을 제거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설교 요약>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고,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아픈 수술을 감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사랑하셨기에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양선은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한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시며 먼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를 덮어 두는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하시되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사랑입니다. 자비로 품어 주시고, 양선으로 거룩한 삶을 향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 없는 양선은 차가운 판단이 되고, 양선 없는 자비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자비와 양선이 함께 나타납니다. 먼저 품어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권면합니다. 참된 사랑은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9절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존재 자체로 어둠을 몰아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탐욕과 교만,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양선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성전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양선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 선하심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나눔 질문 >

-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된 ‘양선’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착함’과 성경이 말하는 ‘양선’은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 2) ‘여호와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시편 34:8)라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제로 경험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경험이 지금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 3) 이번 한 주 동안 가정이나 직장,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양선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작은 실천이라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보세요.
- 4)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을 대할 때 자비와 양선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까?
혹시 자비만 있거나, 반대로 판단만 앞섰던 모습은 없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5)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를 나누어 봅시다.